

서 언序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중요한 방편의 하나가 옛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生生을 영위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본서는 옛 선현先賢들의 글 가운데 이에 관한 길잡이가 될 만한 명설名說과 자설字說을 골라 번역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名〕을 갖게 마련이다. 옛날에는 지금의 성년식을 남자는 관례冠禮라 하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례와 계례를 행할 때에 명名에 근거하여 자字를 짓게 된다.

바로 이 태어나면서 갖게 된 명名과 관례를 행하면서 짓게 된 자字 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으며, 명과 자를 지어주면서 이런 인생 목표와 그 실천방안을 설명한 명설名說과 자설字說도 아울러 지어주었다.

성인成人이 되어 자신의 명자설을 받게 된 사람은 명자설에 담긴 뜻에 맞추어 살고자 날마다 그 뜻을 돌이켜보며 그에 맞게 살

있는가를 반성하는 것을 자기수양自己修養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명사의顧名思義라 하는데, 명과 자를 돌이켜보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격변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인생의 좌표座標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는 일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실에 절망絶望하여 좌절挫折하거나 사회현실을 증오憎惡·저주詛呪하며 그릇된 길로 내달아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빈발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생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좌표는 설정하였으되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본서에 수록된 선현들의 명자설名字說이 바람직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명名은 자신을 상징하는 칭호이다. 젊은이들이여,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상징하는 명을 사랑하고, 명이 더럽혀지거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바로 그 명이 모든 이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라!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명예名譽이다. 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나의 명이 모든 이들의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느냐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는 명에 쓰인 글자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즉 나의 명이 나를 명예名譽롭게 하거나 불명예不名譽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처신이 나의 명을 명예롭게 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명사의顧名思義하면서, 아울러 옛 선현들의 명설과 자설에서 그 본보기를 찾고 그 뜻에 따르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자.

본서의 도입부導入部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명과 자의 의의 및 선현들이 명과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명과 자의 뜻에 충실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했으며, 명과 자는 어떻게 지었는가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1장은 명과 자에 대하여 필자가 고구考究한 내용을 기술한 총설이요 역문譯文이 아니다. 제2장에서는, 우리 선현들의 경명敬名 의식에 관한 글을 번역하여 수록하였으며, 명과 자에 대한 원론原論에 해당한다.

제3장 명설名說과 제4장 자설字說에서는 명과 자에 함유된 뜻을 강조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힌 글들을 시대순에 따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현들이 지녔던 가치관과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도 엿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선현들의 글을 소개하고자 하는 염원念願 때문에 천학비재淺學非才함을 무릅쓰고 그들의 문집文集에 수록된 명설과

자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골라 번역하였다. 한문漢文뿐 아니라 한문투漢文套의 역문譯文까지도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므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역하지 않고 의역한 부분도 있고, 주석을 달아야 할 부분을 역문 속에 녹여 넣은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역문 가운데는 선현들의 뜻을 충실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나, 이 책을 내게 된 충정衷情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목 차

간행사

서언

일러두기

제1장 선현들의 명名과 자字에 대한 의식

1. 사람의 이름 [名] / 17
2. 피휘避諱 / 18
3. 관례冠禮와 자字 / 19

제2장 명名과 자字의 의미

1. 명名을 존경함 [尊名] - 송문흠宋文欽 / 22
2. 명을 함부로 부르지 못함 [諱名] - 안정복安鼎福 / 24
3. 명을 바꿀 수 없소 [不改名說] - 장복추張福樞 / 27
4. 명으로 부르기를 꺼려 피함 [避諱] - 장유張維 / 29
5. 한유韓愈의 〈회변〉을 이어 보충함 [續諱辨] - 유희춘柳希春 / 30
6. 피휘避諱에 대하여 [諱辨] - 이익李瀼 / 34
7. 명名과 자字의 연관성 [名字] - 안정복安鼎福 / 37

12 명설名說과 자설字說

8. 관례冠禮에 대하여〔冠禮說〕- 이영익李令翊 / 39
9. 아들 제원濟遠에게 관례 뒤에 말해주다
〔男濟遠冠禮後戒辭〕- 이재李縉 / 43
10. 막내아들 영경榮慶의 관례를 행하며
〔冠季子榮慶文〕- 조관빈趙觀彬 / 45

제3장 명名에 대한 해설

1. 아들의 명名을 지어주며〔名子說〕- 하륜河崙 / 50
2. 유정후柳正厚의 두 아들 명을 지어주며
〔名柳侯正厚二子說〕- 홍귀달洪貴達 / 51
3. 두 아들의 명을 지어주며〔名二子說〕- 송순宋純 / 55
4. 서자 영득榮得에게 경계하게 하다
〔戒庶子榮得文〕- 조관빈趙觀彬 / 56
5. 생질 이세학李世學의 명을 풀이해주며
〔李生世學名解〕- 권만權萬 / 59
6. 아들의 명을 지어주며〔名子說〕- 이종후李鍾厚 / 60
7. 외종제外從弟의 명을 바꾸어주며
〔外從弟改名說〕- 박제가朴齊家 / 61
8. 아들의 명을 신흔辛으로 지으며〔名子辛說〕- 기정진奇正鎭 / 63

제4장 자字에 대한 해설

1. 경보敬父로 자字를 바꾸어주며〔敬父說〕- 이곡李穀 / 67

2. 한씨택 네 아들의 명과 자에 대하여 풀이해주며
〔韓氏四子名字說〕 - 이색李穡 / 69
3. 일본 거사居士 중준重俊의 자를 지어주며
〔日本國居士重俊字說〕 - 김종직金宗直 / 73
4. 한훈韓訓의 자를 지어주며 〔韓訓字說〕 - 홍귀달洪貴達 / 76
5. 김사신金士伸의 자에 대하여 〔金士伸字詞〕 - 서경덕徐敬德 / 78
6. 권생權生 형제의 명과 자를 지어주며
〔權生兄弟名字說〕 - 주세붕周世鵬 / 80
7. 명을 경륙景陸, 자를 자산子散으로 지어주며
〔景陸字說〕 - 이호민李好閔 / 83
8. 이해창李海昌의 자를 지어주며 〔李海昌字序〕 - 임숙영任叔英 / 85
9. 김수홍金壽弘의 자를 지어주며 〔金生壽弘字說〕 - 장유張維 / 88
10. 권성중權聖中の 자를 지어주며 〔權君聖中字說〕 - 허목許穆 / 90
11. 박세주朴世周의 자를 지어주며 〔朴世周字說〕 - 송시열宋時烈 / 91
12. 조의망趙嶷望의 명과 자에 대하여
〔趙嶷望名字說〕 - 송시열宋時烈 / 93
13. 윤륜尹掄의 자를 지어주며 〔尹掄字說〕 - 유계俞檠 / 97
14. 윤식尹拭의 자를 미중美中으로 지어주며
〔尹拭字美中說〕 - 윤선거尹宣舉 / 101
15. 이하조李賀朝의 자를 지어주며
〔李賀朝字序〕 - 김수흥金壽興 / 102
16. 김수연金粹然의 자를 지어주며
〔金粹然字說序〕 - 이현일李玄逸 / 106
17. 김순金洵, 징濇, 호灝 삼형제의 자를 지어주며
〔金洵濇灝三兄弟字說〕 - 김수항金壽恒 / 108

14 명설名說과 자설字說

18. 박태한朴泰漢의 자를 교백喬伯으로 지어주며
〔朴泰漢字喬伯說〕 - 윤중尹拯 / 111
19. 유도경柳道卿의 명과 자를 바꾸어주며
〔柳道卿字說〕 - 박세채朴世采 / 113
20. 정효선鄭孝先의 자를 지어주며
〔鄭生孝先字說〕 - 김석주金錫胄 / 115
21. 종손 명溟의 자를 자심子深으로 짓고
〔從孫溟字深字說〕 - 이여李畬 / 118
22. 김희로金希魯의 자를 지어주며
〔金生希魯字說〕 - 최석정崔錫鼎 / 122
23. 김문택金文澤의 자를 덕조德祖로 지어주며
〔金文澤字德祖說〕 - 이이명李頤命 / 125
24. 조카 석정錫定과 석녕錫寧의 자를 지어주며
〔姪子錫定錫寧字說〕 - 어유봉魚有鳳 / 129
25. 양임로梁壬老의 자를 실지實之로 지어주며
〔梁壬老字實之序〕 - 김춘택金春澤 / 133
26. 심명복沈命復의 자를 성지誠之로 지어주며 축하하다
〔沈生命復字誠之祝辭〕 - 이덕수李德壽 / 137
27. 권사근權思近의 자를 가원可遠으로 지어주며
〔權可遠思近字說〕 - 이광정李光庭 / 139
28. 김상열金相說의 자를 지어주며
〔金生相說字說〕 - 박필주朴弼周 / 142
29. 김종수金鍾秀의 자를 이실而實로 지어주며
〔金而實(鍾秀)字說〕 - 정내교鄭來僑 / 146
30. 이사면李思勉의 명을 사구思九로 바꾸고 자를 자용子容으로 지어주며
〔李生思勉改名思九字子容序〕 - 윤봉구尹鳳九 / 149

31. 재종손 시대始泰의 자를 지어주며
〔再從孫始泰字敍〕 - 김성탁金聖鐸 / 151
32. 회지會之라 지은 자에 대하여 〔會之字說〕 - 조구명趙龜命 / 155
33. 이채李採의 자를 성박聖博으로 지어주며
〔李採字聖博說〕 - 조구명趙龜命 / 159
34. 조군趙君 형제의 자를 지어주며
〔趙君兄弟字說〕 - 정범조丁範祖 / 160
35. 이수자李樹滋의 자를 지어주며 〔李樹滋字說〕 - 홍양호洪良浩 / 161
36. 정술인鄭述仁의 자를 지어주며 〔鄭述仁字說〕 - 신대우申大羽 / 163
37. 이재순李在淳의 관례를 주재하고 〔李在淳冠說〕 - 이영익李令翊 / 166
38. 남한탁南漢濯의 자를 지어주며 〔南君漢濯字說〕 - 정종로鄭宗魯 / 170
39. 남택정南宅正의 자를 지어주며 〔南宅正字說〕 - 정종로鄭宗魯 / 172
40. 셋째 동생 유락有樂의 자를 지어주며
〔叔弟有樂字序〕 - 서유구徐有渠 / 175
41. 이사온李士蘊의 자를 바꾸어주며
〔李士蘊改字說〕 - 홍직필洪直弼 / 178
42. 소진형蘇鎭衡의 자를 지어주며 〔蘇鎭衡字說〕 - 조병덕趙秉惠 / 181
43. 정군조鄭君祚의 세 아들 명과 자를 지어주며
〔鄭君祚三子名字說〕 - 임헌회任憲晦 / 185
44. 곽명원郭鳴遠의 자를 지어주며 〔郭鳴遠字說〕 - 이진상李震相 / 187
45. 이돈李燾의 자를 지어주며 〔李燾字辭〕 - 전우田愚 / 190
46. 이민응李敏應의 자에 대하여 〔李敏應字說〕 - 유인석柳麟錫 / 191
47. 이여재李汝材의 자를 지어주며 〔李汝材字說〕 - 곽종석郭鍾錫 / 196
48. 조백거曹伯據의 자에 대하여 〔曹伯據字說〕 - 기우만奇宇萬 / 199

16 명설名說과 자설字說

49. 김근용金謹鏞의 자를 윤행允行으로 지어주며

〔金謹鏞字允行箴〕 - 김택영金澤榮 / 200

50. 암현巖顯의 자를 지어주며 〔字巖顯說〕 - 황현黃玹 / 202

51. 외종제 심영만沈永萬과 영억永億의 자를 지어주며

〔內弟沈永萬永億字說〕 - 이남규李南圭 / 206

52. 마희천馬希遷의 자를 지어주며 〔馬希遷字說〕 - 조금섭曹兢燮 / 209

제1장 선현들의 명名과 자字에 대한 의식

1. 사람의 이름 〔名〕

사람의 이름〔名〕은 그 명을 가진 인물을 상징하는 칭호이다. 《설문說文》에는 명을 “명은 자신이 부르는 것이다. 명名자는 구 口자와 석夕자가 합쳐진 것으로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입〔口〕으로 자신의 이름〔名〕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名 自命也 從口從夕 夕者冥也 冥不相見 故以口自名〕” 하여, 명名자의 뜻을 풀이하였다.

옛날에는 출생 후 3개월쯤 지난 뒤에 아이의 조부나 부친이 길일吉日을 골라 아기를 안고 조상의 사당으로 가서 명을 지어 아이에게 일러주며 조상신에게 이를 아뢰었다.

명은 흔히 아이의 장수長壽, 출세, 부귀 등을 나타내는 뜻을 지닌 글자나 신信과 의義를 근거로 하여 부르기에 좋고 쓰기 편한 글자로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두 자로 지어주었으나, 그 중의 한 자는 동족同族이 공통으로 넣는 항렬字行列字이므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고유한 명은 항렬자를 제외한 한 글자뿐이라 할 수 있다.

예부터 작명시作名時에 기피해야 할 금기가 있었으니, 이를 육

불六不이라 하여 국명國名, 관명官名, 산천명山川名, 은질명隱疾名, 생축명牲畜名, 기폐명器幣名 등에 쓰인 글자는 명으로 쓰지 않았다. 이는 명의 고유성固有性을 쉽게 드러내고 천대賤待받는 것을 피하며, 피휘避諱와 현양顯揚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아이 적에는 비정식 명칭인 소명小名(이를 아명兒名, 소자小字, 유명乳名이라고도 한다.)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이는 대체로 조속粗俗하게 지은 어릴 때의 애칭愛稱으로, 사용범위가 가정家庭 내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정식으로 지은 명은 관칭의 호적에 등재한 것으로 성인成人이 된 후에도 계속 쓰는 명이므로 이를 관명官名, 관명冠名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2. 피휘避諱

옛 예법禮法에 의하면 관례冠禮를 행하여 성인成人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어른으로 예우해야 하므로, 그의 명名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었다. 즉 존귀尊貴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비천하거나 나이 적은 사람의 명을 부를 수 있으나, 재하자在下者가 존장자尊長者를 명으로 부르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의 명을 부르기 꺼려서 피하는 것을 ‘피휘避諱한다’ 또는 ‘휘諱한다’라고 하였다.

사람을 공경恭敬하려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명을 공경하지 않